

Goodyear, 프랑스 타이어 생산 중단

2010년 3/4분기까지 820명 감원 ... 트랙터·농기구용 공장 매각도 검토

미국의 타이어 제조기업 Goodyear는 높은 제조비용을 줄이기 위해 프랑스 아미앵공장의 일반 소비자용 타이어 생산을 중단기로 결정했다.

Goodyear는 2010년 3/4분기까지 공장 근로자 1200명 가운데 820명을 감원키로 했다고 5월28일 발표했다.

Goodyear는 현재 프랑스에서 총 3500명을 고용하고 있다.

이밖에도 세계적으로 트랙터 등 농기구용 타이어 공장의 매각도 모색하고 있다. 그러나 아미앵 공장에서의 농기계 타이어 제조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5/29>